

# 인간과 신앙

리살레이 누르 (Risale-i Nur) 서적에서  
스물세 번째 말씀



Bediuzzaman Said Nursi 지음

지은이 Bediuzzaman Said Nursi

번역자 신양섭

원서명 23. SÖZ

편집장 Muhammed OZKAYA, Ahmet AYDOGAN

이메일 readnurkorea@gmail.com

역자 : 신양섭

역자 신양섭은

\* 198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졸업.

\* 1985-1987년 요르단 정부 장학생으로 이슬람대학에서 아랍어 연수.

\* 1987-1995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페르시아어문학과 석.박사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강의 중.

\* 주요 저서 :

『바보 현자의 웃음 철학』(2005),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2012)외 다수

\* 주요 논문 :

「페르시아 문학 속의 예수 관련 표현 연구」(2012) 외 다수가 있다.

「페르시아 문학 속의 반유대주의 표현 연구」(2017)



## 저자 목자

Bediuzzaman Said Nursi (b. 1876-d. 1960)는 그의 추종자들과 반대자들에게 20세기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ediuzzaman은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지능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14 세의 나이에 Madrasa (종교 학교) 교육의 정상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학자들과 논쟁할때에 놀랄만한 기억력과 정복당한 적이없는 기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정확한 기억력과 훌륭한 분석 능력의 확인으로 "Bediuzzaman"또는 "비할데 없는 시간"또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다른 학생들이 9년만에 성취 할 수 있는 것들을 Nursi는 3 개월 만에 성취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의 작품 (The Risale-i Nur Collection)은 130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하게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루는 것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읽는 이가 믿고 있던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물론적 철학에 깊숙이 스며 들어있는 사고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철학이 이야기하는 모든 질문, 의심 및 혼란에 구체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답변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그의 Risale-i Nur 는 터키에서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국가에 의한 억압에 노출 된 기간 동안 회교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지역의 이슬람교 부활에 한 몫을 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알게 됨에 따라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Risale-i Nur 서적은 미국,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필리핀, 튀니지, 러시아, 호주 등의 50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의 탁월한 작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과학, 철학, 종교 등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Risale-i Nur 움직임은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1960년 3 월 23 일, Bediuzzaman Said Nursi가 사

망했을 당시에 법원에서 평가한 그의 개인 재산 전체는 평소 그가 말하던대로 바구니 한통뿐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나의 전 재산은 바구니 한 통뿐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فِي أَحْسَنِ تَقْوِيمٍ ۝ ثُمَّ رَدَدْنَاهُ أَسْفَلَ سَافِلِينَ ۝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셨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하는 자들은 제외이니라.” 1

---

<sup>1</sup> (꾸란 95장 4-6절)

# 제1장

신앙의 수천 가지 좋은 점들 가운데 오직 5가지만  
5가지 요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첫번째 요점

인간은 신앙의 빛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천국에 합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암흑으로 가장 낮은 지위로 떨어져 지옥에 어울리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인간을 영광스러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앙을 통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예술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새겨놓은 자수들 덕분에 하나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불신은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한 단절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술은 숨어버립니다. 그것의 가치 또한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일종의 동물적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 인간들의 예술 속에서는 그 물질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별개입니다. 때로는 같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재료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다섯 푼짜리 쇠와 같은 재료에서 다섯 냥의 어떤 예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때로는 어떤 골동 예술품의 경우 백만 냥의 값어치가 나가지만 그 재료의 값은 다섯 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골동 예술품이 골동품 시장에 간다면, 경이롭고 아주 오래된 훌륭한 예술가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예술가를 언급하고 그 예술품을 전시한다면 백만 냥에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철 시장에 가져간다면 다섯 푼의 고철 값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리의 주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하나의 골동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섬세

하고 세밀한 권능의 기적인데, 그 분의 모든 이름들을 나타내는 대상이자 그 이름이 새겨진 자수들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우주에 가장 세밀화 된 건본의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신앙의 빛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자수들이 그 빛들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 신자는 자각을 통해 그것들을 읽고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도 그것들을 읽게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영광스러운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예술품이자 피조물입니다, 저는 그 분의 자비와 은총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과 같은 의미들을 통해 인간에게 있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예술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술가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로 형성된 신앙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예술작품을 명백하게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그 성스러운 하나님의 예술로 결정되며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그 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거울(Âyine Samedaniye)*<sup>2</sup>과 관련되어

---

<sup>2</sup> **Âyine-i Samedaniye:**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모든 만물은 언제나 그 분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만물의 간청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의 표식들과 다름 없으며, 그 분을 알고 소개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신앙의 빛으로

있습니다. 그 경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들 보다 먼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고 천국에 합당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손님이 됩니다.

만일 관계의 절단으로 형성된 불신이 인간의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 때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들을 새긴 그 의미 있는 자수들이 암흑에 묻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면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던 정신적 측면들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마치 뒤집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긴 숭고한 예술품들과 숭고한 정신적 자수들 대부분이 감춰질 것입니다. 남아서 눈에 보이는 일부는 천박한 원인들과 자연과 우연의 일치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꺼져갈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빛나는 다이아몬

---

밝아진 정신적 심장이요, 영혼이요, 생명인 것이다.

**Âyine:** 거울은 자신에게 나타나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물건이다. 빛을 반사해 보여주기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들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며, 지고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비춰주는 존재들 또한 은유적으로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이자 주인공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작품 역시 거울이다.

드였지만 하나 하나 빛을 잃은 유리가 될 것입니다. 오직 동물적 물질에만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물질의 결말과 결실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짧은 생애에서 동물의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슬퍼하는 상황에서 오직 찰나의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은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다이아몬드에서 숯조각으로 바꾸어놓습니다.

## 두번째 요점

신앙은 하나의 빛으로서, 인간을 비취주며 그 위에 씌어져 있는,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그 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글들을 읽게 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비취줍니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암흑으로부터 구출해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니라"(꾸란 2장 257절)라는 성스러운 꾸란 구절의 비밀에 관해 제가 목격한 것을 예로 들어 이 비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환상 속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시무시한 다리가 놓여있었습니다. 다리 아

래는 무척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리 위에 있었으며 이 세상 역시 사방이 캄캄하고 짙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보았습니다. 끝이 없는 암흑 속에서 어떤 큰 무덤을 보았습니다. 즉,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왼쪽을 보았습니다. 공포스러운 암흑의 파도 속에서 거대한 폭풍과 혼란과 대재앙이 몰아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리 아래를 보았습니다. 극도로 깊은 어떤 심연을 보고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암흑에 맞서 제게는 희미한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희미한 불빛으로 보았습니다. 무척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이 제게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앞에 있는 다리의 입구와 그 주변에 너무도 무서운 용들과 사자들과 괴물들이 보여, 저는 “이 손전등이 없었다면 이 공포스러운 것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하고 말했습니다. 그 손전등을 어느 쪽으로 비춰도 그렇게 공포스러웠습니다. “아! 이 손전등이 내게는 재난이구나”하고 말하며 저는 화가 나서 그 손전등을 땅에 팽개쳐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을 부순 것이 마치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큰 전깃불의 스위치를 켜 것처럼 되어 갑자기 그 암흑이 걷혔습니다. 사방이 그 전기불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다리는 몹시 평평한 평원 위에 곧게 뻗은 한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제가 보았던 그 거대한 무덤은 온통 아름답고 푸르른 정원들이 있고, 빛나는 사람들의 인도 아래 경배와 봉사와 대화와 하나님에 대한 염원을 하는 모임 장소였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폭풍과 광음으로 생각했던 절벽과 봉우리는 아름답게 장식되고,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산들의 뒤에 있는 넓은 연회 장소였으며, 아름다운 풍광의 명승지였으며, 높은 휴양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도 무서운 괴물들과 용들이라고 생각했던 피조물들은 온순한 낙타, 소, 양, 염소 등의 가축들을 환상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니,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니라”라는 성스러운 꾸란 구절을 낭송했으며 저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산은 각각 삶의 시작과 삶의 종말, 다시 말해 현세와 중간계<sup>3</sup>이며 그 다리는 삶의

---

<sup>3</sup> 이슬람에서 바르자흐(barzakh)는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의 날까지 머물게 될 정신 세계를 말하며 따라서 현

경로입니다. 그 오른쪽은 과거이며 왼쪽은 미래입니다. 그 손전등은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하늘의 계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의 이기주의입니다. 그 괴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현세의 사건들과 기겁스러운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의 어둠에 빠진 사람은 그 사건에서 제가 처음에 처한 상황과 비슷한데, 그 손전등으로는 결함과 왜곡으로 가득 찬 지식으로 인해 과거의 시간을 거대한 무덤의 형태로,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암흑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래도 엄청난 폭풍과 사건들로 점철된 야만스러운 장소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각자 하나하나가 현명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신하나 다름 없는 사건들과 존재들임에도 해로운 각각의 괴물로 판단해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보호자는 악마들이니, 그들을 광명에서 끌어내어 암흑으로 인도하리라<sup>4</sup>” 라는 꾸란 구절로 판단할 대상이 됩니다.

---

세와 내세의 중간계에 해당한다.

<sup>4</sup> (꾸란 2:257)

만일 하나님의 성스러운 인도가 도달해 신앙이 마음 속에 들어가, 육체의 압제가 견히고 하나님의 경전을 경청한다면, 제가 겪은 그 사건의 두 번째 상황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 때, 갑자기 우주는 환한 대낮의 색깔을 띠며 성스러운 빛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시도다<sup>5</sup>” 라는 꾸란 구절을 낭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간은 거대한 무덤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에 한 선지자나 혹은 한 성인의 지도 하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는 순결한 영혼들의 사회가 삶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Allahu Akbar**)” 라고 말하며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해 미래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왼쪽을 본다면, 중간계와 내세에서 일어나는 산과 같은 몇 가지 큰 변화 뒤에 천국의 정원에 있는 행복의 궁전에 차려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잔치를 신앙의 빛을 통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과 지진과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하임을 알게 됩니다. 봄날의 폭풍

---

<sup>5</sup> (꾸란 24:35)

과 폭우와 같은 사건들이 외견상으로는 거칠지만 내면적으로는 부드럽다는 지혜의 수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무덤은 영원한 행복의 입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측면들을 여러분이 추론해 보시고 진리를 표현에 적용해 보십시오.

### 세 번째 요점

신앙은 빛이며 동시에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얻은 사람은 우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에 따라 사건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라고 말하며 삶의 배를 타고 철저한 안전 속에서 산처럼 밀려오는 사건의 파도들을 보며 헤쳐나갑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고, 편안하게 현세를 지나, 중간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승천은 커녕, 현세의 짐들이 그를 제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원인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친 장막임을 알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요, 그 원인들을 시도하는 것이 일종의 실질적인 기도로 이해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결과들을 오직 지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그 결과들을 그 분으로부터만 알게 되고 그 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테베크울(tevekkül)”<sup>6</sup>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예는 다음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등과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각자의 표를 사서 큰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배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짐을 배에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그것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둔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그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

---

<sup>6</sup> 테베크울(tevekkül, 아랍어 tawakkul)이란 원인들을 찾아 내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한 후,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의 결과를 기다리며 간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을 배에 내려놓고 쉬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나는 내려놓지 않을거요. 아마도 앓게 될거요. 나는 강합니다. 내 물건을 내 등과 머리에서 지키겠소.”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을 나르는 이 안전한 술탄의 배는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잘 지킬거요. 아마도 당신은 어지러워 짐과 함께 바다에 빠질 수 있소. 또한 갈수록 당신은 힘이 빠질 것이요. 이 굵어진 당신의 등과 이 바보같은 당신의 머리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짐들을 버티지 못할 것이요. 선장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당신을 본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보고 당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당신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할 것이요. 또한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왜냐하면, 신중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허약함을 보여주는 당신의 자만심과 무기력을 보여주는 당신의 자존심과 위선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당신의 거짓 꾸밈으로, 당신 자신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요. 모두가 당신을 보고 웃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그 불쌍한 사람의 이성은 정신을 차려 자신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만족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나는 어려움과 감옥과 조롱거리로부터 구출되었나이다”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 테베클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여, 당신도 이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테베클을 행하시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구걸로부터, 모든 사건에 맞서는 떨림으로부터, 자만으로부터, 조롱으로부터 그리고 내세의 고통과 현세의 압박의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 네 번째 요점

신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아마도 인간을 왕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불신은 인간을 극도로 무기력한 짐승으로 만듭니다.

이 문제의 수천 가지 증거들 가운데, 동물과 인간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그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하나의 증거이며 의심할 바 없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이 신앙과 함께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인간으로 그리고 동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물은 태어나면 보통 다른 어떤 세계에서 성장한 것처럼 그 능력에 따라 완전체로 태어납니다. 즉, 보내집니다. 2시간, 혹은 2일, 혹은 2개월 안에 삶의 조건들과 우주와 관련되는 관계들 그리고 삶

의 법칙들을 배우고 기술을 익힙니다. 인간이 20년 동안 얻는 생활력과 기술을 참새나 꿀벌 같은 동물은 20일 안에 익힙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직감적으로 연습니다. 말하자면 동물의 기본적인 의무는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음으로써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무기력함을 보여줌으로써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의 의무는 그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그것이 실질적인 경배입니다.

인간의 경우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법칙에 무지하며, 심지어 20년 안에도 삶의 조건들을 완전히 배우지 못합니다. 아마도 삶이 끝날 때까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극도로 무기력하고 허약한 형태로 세상에 보내지고 1-2년 만에야 단지 설 수 있습니다. 15년 만에 겨우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덕분에 오직 이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해로운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천부적 의무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어떻게 누군가의 은총으로 이처럼 섬세하게 양육되고 관리되는 걸까?”의 해답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

고 필요로 하는 1,000 가지 중 하나도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무기력하고 빈약하다는 말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약함과 빈곤함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가장 높은 위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지식과 기도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현세에 왔습니다. 본성과 능력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된 지식들의 기본과 원천과 빛과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 뿌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인간은 끝없는 허약함과 끝없는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끝없는 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며, 끝없는 가난과 함께 끝없는 어떤 필요한 것에 가로잡혀 있으며 끝없는 욕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기본적 의무는 신앙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기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목적과 희망을 손에 넣기 위해 울거나 요청할 것입니다. 즉, 허약한 언어로 구성된 행동과 말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며 자신이 의도한 대로 성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

간은 모든 생명체의 세계 속에서 섬세하고 세밀하고 예민한 아이와 같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궁정에서 허약함과 무기력으로 울거나 혹은 가난과 곤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그 분의 처분에 맡기거나 혹은 받아들여진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파리에 비명을 지르는 멍청하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처럼 “나는 내 힘으로 이 굴복되지 않는 그리고 그보다 천 배는 더 강한 이상한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내 생각과 대책을 통해 그것들을 내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어.”라고 말하며 배은망덕에 휩싸이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강력한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다섯 번째 요점

신앙이 확실한 수단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그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처럼 지고하신 진리의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주께서는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을 것이니라.”<sup>7</sup>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답하리라”<sup>8</sup>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꾸란 구절은 일반적이며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답: 응답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보상을 내리는 것은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픈 아이가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의사가 “말해보아라”, 즉 무엇을 원하냐고 대답합니다. 아이가 “이 약을 제게 주세요”라

---

<sup>7</sup> (꾸란 25장 77절)

<sup>8</sup> (꾸란 40장 60절)

고 말합니다. 의사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병에 이로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병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아무 것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이자 절대적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존재하심과 응답하심을 통해 황량함과 고독함의 공포를 친숙함으로 바꾸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양육자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요청 받은 것을 혹은 그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은 아무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경배입니다. 경배에 대한 결실은 내세에서 맺어집니다. 현세의 목표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와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목표들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를 기원하는 예배나 기도는 일종의 경배입니다. 가뭄은 그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경배는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도 그 기도와 그 경배가 순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습니다. 일몰은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또한 일식과 월식은 각각 “쿠수프(kusuf) 예배”와 “후수프(khusuf) 예배”라고 불리는 두 가지 특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즉, 밤과 낮의 빛을 내는 징후들을 가림으로써 성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께서 그 분의 종복들을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경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 천문학자의 계산으로 언제 나타나고 얼마나 계속될지 측정할 수 있는 - 월식과 일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뭄도 역시 비를 기원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재난들의 공격과 해로운 것들의 괴롭힘은 몇 가지 기도의 특별한 시간들인데, 인간은 그러한 시간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와 간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정에 피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재난들이 물리쳐지지 않는다고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이 그 분의 자비와 은혜로 재난을 없애셨다면 - “빛 위의 빛”처럼 가장 좋은 일입니다 - 그 때 기도

의 시간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일종의 경배의 비밀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단지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어 기도로 그 분께 피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처리를 그 분에 맡겨야 하고 그 분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 분의 자비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명백한 꾸란 구절들의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모든 만물이 그 각자가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고 특별한 경배와 절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우주로부터 성스러운 하나님의 궁정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능력의 언어에 의한 기도: 모든 식물의 기도처럼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언어로 무한한 번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어떤 형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필수적 언어에 의한 기도: 모든 생명체의 능력에서 벗어난 필수적인 것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각자가 타고난 필수적 언어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관대하신 하나님께 삶의 유지를 위한 일종의 양식과 같

은 몇 가지 바라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긴급의 언어에 의한 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영혼을 가진 존재 각자가 확실한 어떤 피신처를 구하다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보호자에게 피신처를 구합니다. 아마도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종류의 기도는 어떤 방해만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

네 번째 종류의 기도는 가장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상태의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말로 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인들에 착수하는 것은 행동의 기도입니다. 원인들을 모으는 것은 그 원인들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태의 언어로 그 원인들의 결과를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께 간청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밭을 가는 것은 자비의 창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에 의한 기도는 아낌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지향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바라는 바들을 간청하는 것

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장 멋진 목표, 가장 달콤한 결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누군가의 손이 만물에 미칠 수 있고 각자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약한 자를 가엾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지 압니다.

따라서, 오 허약하고 가난한 인간이여, 자비의 보물창고 열쇠이자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되는 기도와 같은 수단을 게을리 하지 마시오. 기도를 가까이 해서 인간성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시오. 왕처럼 모든 우주의 기도들을 자신의 기도 안에 담으시오.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종복이자 총대리인처럼 “우리는 당신께만 구원을 청하나이다”<sup>9</sup> 라고 말하십시오. 우주의 가장 멋진 모범이 되시오.

---

<sup>9</sup> (꾸란 1장 4절)

## 제2장

인간의 행복과 고통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요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최상의 형태로 창조되고 인간에게 가장 포괄적인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위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지상에서 하늘의 옥좌까지, 원자에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배열되어 있는 각각의 위치와 단계와 등급과 계층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시험의 무대에 던져져, 끝없는 추락과 상승으로 향하는 두 가지 길이 앞에 펼쳐진, 권능의 기적과 창조의 결과와 예술의 경이로, 현세에 보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공포스러운 발전과 퇴보의 비밀을 다섯 가지 요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첫 번째 요점

인간은 우주의 대다수 종류를 필요로 하고 그것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현세의 사방에 흩어져 있으며 바라는 것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원하듯이 거대한 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원을 희망하듯이, 영원한 천국을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를 보기를 갈망하듯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어떤 집에 머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그 집의 문을 열 필요가 있듯이, 중간 계로 옮겨간 99 퍼센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이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거대한 현세의 문을 닫고 경이로운 최후 심판일의 집합 장소인 내세의 문을 여실, 그리고 현세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내세를 건설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정에 피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될 분은, 만물의 고삐를 손에 쥐고 계시고, 만물의 보물을 옆에 두고 계시고, 만물을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능함과는 거리가 멀고, 결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결핍으로부터 훨씬 위에 계시는, 영광스럽고 전능하

신 분이요, 아름답고 자비로우신 분이요, 완벽하고 현명하신 분인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은 인간이 끝없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실 무한한 능력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야말로 경배드려 마땅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 인간이여, 만일 당신이 그 분에게만 경배드린다면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만일 경배를 외면한다면 무능한 피조물의 천박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이기주의와 능력만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버리고, 자만과 거만에 빠진다면, 그 때는 선행과 창조 면에서 꿀벌과 개미보다 더 낮고 거미와 파리보다 더 나약해질 것입니다. 악행과 파괴 면에서는 산보다 더 무거워지고 전염병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인간이여, 당신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존재, 선행, 긍정, 적극적 행위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 부존, 악행, 부정, 수동적 행위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 당신은 꿀벌이나 참새보다 낮고 파리나 거미보다 약합니다.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 당신은 산과 땅과 하늘을 능

가합니다. 그들이 꺼려했던 그리고 허약함을 드러냈던 어떤 짐을 당신이 질 수 있으며 그들보다 더 넓고 큰 영역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선행과 창조를 행할 때, 그 범위와 관련해 오직 당신의 손이 도달할 수 있고 당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선행과 창조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악행과 파괴를 저지른다면, 그 때 당신의 악행은 정도를 벗어나고 당신의 파괴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은 하나의 악행이자 파괴이며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죄악에는 모든 우주를 모욕하고, 모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보고, 모든 인류를 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존재들은 어떤 높은 지위와 중요한 의무를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울들”<sup>10</sup>이며, 성스러운 하나님의 신하들이기 때문입니다.

---

<sup>10</sup> 여기서 “거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며 그 분이 모든 면에서 결점이 없음을 거울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신은 그 존재들을, 거울을 갖고 있고 의무를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지위에서 떨어뜨리며, 무용지물과 우연히 마주친 놀이감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또한 죽음과 이별의 파멸을 통해 쉽게 썩고 변질되는 일시적 물질들 수준과 중요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찮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신은 모든 우주에서 그리고 존재들을 비추는 거울에서 자수들과 징후들과 이름다운 장식들을 보여주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불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들의 징후들을 멋지게 공표하는 지혜의 찬가이자, 영생 나무의 장치들을 모아놓은 마치 씨앗같은 명확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자, 가장 위대한 신탁의 책임을 부여받음으로써 땅과 하늘과 산보다 더 높아지고 천사들에 비해 우월권을 획득한, 지상의 대리인의 지위를 차지한 주인공을, 가장 천박한 필멸의 일시적인 동물보다 더 천박하고, 더 허약하고, 더 무능하고, 더 가난한 등급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미 없고 혼란스럽고 쉽게 무너지는 어떤 평범한 현판의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요약하면, 악의 유혹에 굴복하는 영혼은 (나프스

**알암마라**<sup>11</sup>), 파괴와 악행의 측면에서 끝없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창조와 선행의 측면에서는 그 능력이 매우 적고 미약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채의 집은 하루 만에 부술 수 있지만 100일만에 그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과 존재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파괴와 악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종복이 된다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주시리라<sup>12</sup>” 라는 꾸란 구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끝없는 악의 능력은 무한한 선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가장 뛰어난 형태”의 가치를 획득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오 경솔한 인간이여! 지고하신 진리의 주님의 관용과 자비를 보십시오. 하나의 악행을 1,000개의 악행으로 기록하고 하나의 선행을 하나로 기록하

---

<sup>11</sup> [Nafs al-Ammarah]: 피조물들의 권리나 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쾌락으로 기우는 인간의 비이성적, 본능적 자아를 일컫는 말이다.

<sup>12</sup> (꾸란 25장 70절)

거나 혹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도 옳은 일이지만, 하나의 악행을 하나로 기록하고 하나의 선행을 10개로, 때로는 70개로, 때로는 700개로, 때로는 7,000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요점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포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은 인과응보이며 정의 그 자체이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관용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 두 번째 요점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이 현세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관점에서 내세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과 관련해 인간은 너무도 가엾은 피조물이어서, 그의 자본이라고는 오직, 선택 면에서는 머리카락만큼 작은 부분적 선택권만을 갖고 있고, 능력 면에서서는 허약한 획득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삶의 면에서는 쉽게 꺼지는 불꽃 같은 존재이며, 인생 면에서는 빨리 지나가버리는 짧은 생애를 보내며, 존재 면에서는 금방 썩어버리는 작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와 더불어 인간은 우주의 각 층에 퍼져있는 수많은 종류들, 셀 수 없이 많은 개체들 가운데 섬세하고 나약한 한 개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과 관련해, 그리고 특히 경배에 대한 무기력과 빈곤의 면에서, 매우 방대한 범위와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명하신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정신적 본질 안에 끝없는 무기력함과 한없이 큰 빈곤을 포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무한한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풍부함이 끝이 없는 관대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징후들을 모아놓은 넓은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톨의 씨앗과 유사합니다. 그 씨앗에, 성능의 면에서 정신적이며 중요한 장치와, 그리고 운명의 면에서는 세밀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일을 하고, 그 좁은 세계에서 나와 방대한 공중의 세계에 들어가고, 창조주에게 능력의 언어로 나무가 되기를 간청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어떤 완전성을 찾아나갑니다. 만일 그 씨앗이 사악한 성격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정신적 장치를 땅 밑에서 몇몇 해로운 물질들을 흡수하는데 소비했다면 그 좁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쓸모없이 망가져 부패될 것입니다. 만일 그 씨앗이 그 정신적 장치를 “진실로 하나님은 씨앗을 피

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sup>13</sup> 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본보기로 받아들여 유용하게 이용한다면 그 좁은 세계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가 됨으로써 그 작고 특별한 실체와 정신적 영혼은 커다란 하나의 총체적 실체의 형상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도 성능의 면에서 중요한 장치들과 운명의 면에서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부여되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이 좁은 현세의 세속적 삶이라는 땅 밑에서 그 정신적 장치를 마음의 욕망대로 써버린다면, 썩은 씨앗처럼 그 하찮은 쾌락 때문에 짧은 생애에 좁은 장소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망가져 부패하면서, 정신적 의무들을 불행한 영혼에 부담시키며, 현세를 거쳐갈 것입니다.

만일 그 능력의 씨앗을 이슬람의 물과 신앙의 빛으로 경배의 땅 밑에서 키우며, 꾸란의 명령들을 본보기 삼아 정신적 장치들을 진정한 목적으로 돌린다면, 틀림없이 실체가 보이는 세계 그리고 중간계에서

---

<sup>13</sup> (꾸란 6장 95절)

싹을 티우고 가지를 뺄게 될 것이며, 내세와 천국에서 무한한 완벽함과 은총의 수단이 될 불멸의 나무가 되고, 불변의 진리 장치들을 모아놓은 가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멋진 하나의 기계가 되고, 이 우주 나무의 축복 받고 빛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 비밀(Sir)<sup>14</sup>, 영혼, 이성, 심지어는 환상 등의 능력을, 영원한 내세의 삶으로 향하게 하면서, 각자가 자신에게 알맞는 특별한 어떤 경배의 의무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현세의 삶의 모든 세세한 것들에 빠져 모든 종류의 쾌락들, 심지어는 그 중 가장 천박한 것을 탐닉하기 위해 모든 감정과 마음과 이성을 악마가 조정하는 영혼에 굴복시키고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환상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보았습니다:

---

<sup>14</sup> 여기서 “비밀(sir)”이란 인간이 정신적 존재들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찰력과 빛을 소유한, 영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힘, 감각 혹은 능력을 말한다.

저는 어떤 큰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큰 궁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궁전들의 문을 보니, 너무도 화려하고 빛나는 극장처럼 각별한 시선을 끌었으며,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 그 궁전의 주인이 문 앞에 나와 한 마리 개와 놀기도 하고 그 개가 노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야만스러운 젊은이들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성숙한 소녀들 또한 아이들의 놀이를 주선하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도 그들에게 사령관이나 된 것처럼 어떤 배우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거대한 궁전의 내부가 텅 비었으며 모두가 자신의 섬세한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은 타락했으며 그래서 문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나가다가 또 다른 큰 궁전과 마주쳤습니다. 문 앞에는 충성스러운 개가 누워있었고 거칠고 완고하고 무뎉뎉한 문지기가 있었을 뿐 어떤 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의 그곳은 왜 저렇고 이곳은 왜 이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이 매우 유쾌한 것을 보았습니다. 궁전 사람들은 건물 건물마다 각자 서로 다른 자신들의 세세한 의무를 다하는라 바빴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궁전의 관리와 운영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윗층에는 소녀들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더 윗층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멋진 예술과 아름답다운 자수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서는 관료가 왕과 정보를 나누며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교양과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하고 숭고한 의무에 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금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 도시의 사방에는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궁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문 앞은 유쾌한데 내부가 텅 빈 궁전들은 불신자들을 이끌며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명예로운 무슬림 위인들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한 쪽 모퉁이에서 어떤 궁전과 마주쳤습니다. 그 위에 “사이드”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더 자세히 살피니 그 위에 제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소리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의 사건을 당신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선행을 베풀게 해주소서!

따라서 그 도시는 인간의 사회 생활이자 인간의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 궁전들은 그 하나하나가 각각의 인간입니다. 궁전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눈, 귀, 심장, 비밀(Sir), 이성 등과 같은 감각들과 마음, 변덕, 탐욕의 힘, 분노의 힘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각각의 감각이 서로 다른 경배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쾌락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변덕 그리고 탐욕과 분노의 힘은 마치 문지기 및 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 고도의 감각들을 마음과 변덕에 굴복시켜 기본적 의무들을 잊게 하는 것은 분명히 퇴보입니다. 발전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당신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 번째 요점

인간은, 행위와 수행의 측면에서 그리고 육체 노동에 관한 한, 허약한 동물이고 무기력한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인간의 활동 범위 및 소유 범위는 너무도 좁아 손을 뻗어야 겨우 미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손에 고삐를 잡힌 길짐승들조차 각자가 인간의 허약과 무능과 게으름의 몫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야생 동물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보입니다. (길들인 염소와 황소 및 야생의 염소와 황소처럼)

그러나 그러한 인간도, 영향을 받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측면에서는, 이 현세라는 숙소에서 가장 명예로운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도 관대하신 하나님의 손님이 되었으며, 그 분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시고 수많은 진귀한 피조물들과 하인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여행과 관광과 혜택을 위해 너무도 넓은 공간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두셔서, 그 공간의 반경은, 즉 중심에서 외곽 선까지는 눈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심지어는 상상이 미칠 수 없는 장소만큼 방대하고 깊니다.

따라서 만일 인간이 자만심만 믿고 현세의 삶을 자신의 이상적 목표로 삼아 생계의 고통 속에서 일시적인 몇 가지 쾌락을 위해 노력한다면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서 질식해 가버릴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장치들과 도구들과 감각들은 그에 불만을 품고 최후의 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며 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손님으로 알고, 관대하신 분이 허락한 공간에서 손님으로서 생명의 자본을 소비한다면, 너무도 넓은 공간 속에서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해 멋지게 일하고 휴식을 취하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후 가장 높은 지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장치들과 도구들이 그에게 만족을 표하며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편에 서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놀라운 장치들은 이 사소한 현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간을 동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장치 및 도구와 관련해 매우 부유하고 동물보다 100배는 더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세의 삶의 쾌락 속에서 그리고 동물적인 삶 속에서는 100배는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그가 즐긴 각각의 쾌락에는 수천 가지 고통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각각의 쾌락 안에 있는 종말의 고통은 즐거움을 망치고 그 쾌락 안에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쾌락을 얻고 슬픔 없이 즐깁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들이 그를 괴롭히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를 떨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자며 창조주께 감사드립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형태로 창조된 인간이 현세의 삶에만 전념한다면, 자본 면에서 동물보다 100배는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마치 참새처럼 100배는 낮아집니다. 이러한 진실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 그 예를 또 다시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하인에게 금화 열 냇을 주며, "특별한 옷감으로 옷 한 벌을 만들게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하인에게는 금화 천 냇을 주고 그 하인의 주머니에 몇 가지를 적은 쪽지를 넣어 시장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은 열 냇의 금화로 고급 옷감으로 만든 훌륭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아둔한 짓을 하며 첫 번째 하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계산서 쪽지를 읽지도 않은 채, 어떤 가게 주인에게 천 냇의 금화를 주며 한 벌의 옷을 요청했습니다. 비양심적인 가게 주인 또한 가장 저질의 옷감으로 만든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 불운한 하인은 자신의 주인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심하게 꾸중을 듣고 무서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하인에게 주어진 천 냇의 금화는 한 벌의 옷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매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는 정신적 장치들과 인간적 감각들은 그 각각이 동물과 비교해 100 배는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의 모든 등급을 구별하는 인간의 눈과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그 특별한 맛을 식별하는 인간 혀의 미각 그리고 사실들의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 침투하는 인간의 이성과 모든 종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등과 같은 장치들과 도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단지 한두 단계 발전한 동물의 도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오직 그 동물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더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도 예외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장치들 면에서 풍부한 것은 다음과 같은 비밀때문입니다: 이성과 생각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감정도 생겨났으며 감수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천성이 포괄적이라서 수많은 목표들을 향한 욕망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의무를 타고났기 때문에 도구와 장치들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적합한 본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완벽함의 씨앗에 모여있는 능력

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장치가 풍부하고 자본이 많은 것은 틀림없이 사소하고 일시적인 이 현세의 삶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기본적 의무는, 수많은 목표를 향한 의무들을 수행하며 자신의 무능과 가난과 결점을 경배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요, 보편적 시선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것이요, 은총들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감사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행한 기적들을 구경하고 이를 교훈의 시선으로 심사숙고 하는 것입니다.

오, 현세를 숭배하고 현세의 삶에 집착하며 자신이 최상의 형태로 창조된 비밀을 모르는 인간이여! 이 현세의 삶의 진실을 어떤 환상의 사건에서 '옛날의 사이드'가 보았습니다. 그 '옛날의 사이드'를 '새로운 사이드'로 바꾸어 놓은 다음과 같은 비유 사건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행자였으며 긴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즉,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인은 제게 할당해 준 금화 60냥 중에서 한 푼 두 푼 단계적으로 주었고 저도 그것을 소비하며 유흥이 있는 속

소에 갔습니다. 그 숙소에서 하루 밤만에 금화 10냥을 도박과 유흥에, 그리고 명예에 빠져 소비했습니다. 아침에 제 수중에는 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차례의 무역도 하지 못했으며 갈 곳에서 팔 어떤 상품도 사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돈으로부터 제게 남은 것은 고통과 죄악들이었으며 유흥으로부터 생긴 상처와 흉터와 슬픔들만이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러한 슬픈 상황에 있었을 때, 그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나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든 자본을 탕진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군. 자네가 갈 곳에도 파산자로서 손에 가진 것 없이 가게 되겠군. 그러나 자네에게 이성이 있다면 회개의 문은 열려 있다네. 이 이후 자네에게 주어질 나머지 금화 15냥 중 얼마를 손에 넣어도 그 절반을 예비로 저축하게. 다시 말해 자네가 갈 곳에서 자네에게 필요할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게.” 제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중독된 그 습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화를 내며 저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제가, 마치 터널 안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빠르게 달리는 어떤 기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차의 양쪽 방향에 매우 매혹적인 꽃들과 맛있는 과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둔한 야만인들처럼 그것들을 바라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꽃들을 뽑고 과일들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꽃들과 과일들은 온통 가시로 덮여있어 손을 대자 제 손에 박혀 피가 났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면서 손을 떼자 그것들은 제 손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갑자기 기차에 있는 하인이 말했습니다: “5푼만 주면 그 꽃과 과일을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5푼 대신에 당신의 손이 찢어진 것으로 100푼 어치의 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벌금도 있습니다. 허락 없이 당신은 뽑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저는 고통스러워져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고 얼굴을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터널의 입구 대신에 수많은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그 긴 기차에서 사람들이 구멍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맞은 편에 있는 구멍 하나를 보았

습니다. 그 양쪽으로 2개의 무덤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비석에는 큰 글씨로 “사이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하고 놀라서 저는 “아!”하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그 숙소 문 앞에서 제게 충고하던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제가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깨어났습니다. ‘옛날의 사이드’는 사라지고 ‘새로운 사이드’로서의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환상의 사건을, - 주여, 선을 베푸소서 - 그 중 몇 가지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나머지 측면들은 당신이 직접 해석해 보십시오.

그 여행은 영혼들의 세계, 어머니의 자궁, , 청년기, 노년기, 무덤, 중간계, 부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라트 다리를 거쳐 영원한 거주지로 향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 60년의 금화는 60년 간의 생애인데 제가 그 사건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이 45세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남은 15년 중 절반을 내세에 소비하도록, 성스러운 꾸란을 공부하는 진실

한 학생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 숙소는 나에게서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 기차는 시간입니다. 매 1년은 열차의 한 칸입니다. 그 터널은 현재의 삶입니다. 가시가 있는 꽃과 과일들은 불법적 쾌락이요, 금지된 오락인데, 그것들과 접하게 되면 그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의 고통이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들과 헤어지면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처벌도 받게 합니다.

기차의 하인이 "5분을 주면 그것들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것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허용된 노력을 통해 합법적인 영역에서 즐긴 오락과 쾌락들은 그의 즐거움에 충분하다. 금지된 것을 저지를 필요는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당신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번째 요점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매우 연약하고 섬세한 아이와 유사합니다. 그의 허약함에서 큰 어떤 힘이, 그리고 무능함에서 큰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허약한 힘으로 인해 그리고 무능한 능력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허약함을 이해하고 행동과 말과 태도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며 그의 목표들이 그에게 굴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으로는 100분의 1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간혹 상태의 언어로 올린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원성취를, 잘못 알고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의 허약함 속에 있는 힘이 어미 닭으로 하여금 사자도 공격하게 합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 사자는 그 포악하고 굶주린 어미사자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어미 사자를 굶주리게 버려둔 채 스스로 배를 채웁니다. 따라서 주목할 점은 허약함 속에 있는 어떤 힘이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가냘픈 아기는 울음으로써 혹은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혹은 슬프게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강한 자들도 그에게 굴복하게 되지만, 그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1,000배의 힘을 들여도 원하는 것들 가운데 1,000분의 1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허약함과 무능함이 그

에 대한 동정과 보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작은 손가락으로 영웅들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이제 이러한 아기가, 그 동정을 거절하고 그 보호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바보스럽게 자만심을 갖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굴복시킨 거야.”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어떤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또한 자신의 창조주의 자비를 부정하고 그 분의 지혜를 비난하는 어떤 방식으로 배은망덕하게 카룬(Qârûn)<sup>15</sup> 처럼 “나 자신의 지식 덕분에 그것(재물)이 내게 주어졌노라”<sup>16</sup> 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지배와 인류의 발전과 문명의 달성은 유혹을 통해서도 아니고, 정복을 통해서도 아니며,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허약함 때문에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무능함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가난함 때문에 그에게 희사를 베풀고, 그의 무지함 때문에 그에게 영

---

<sup>15</sup> 모세의 백성들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의 풍부한 재산을 믿고 거만을 떨며 종교세 납부를 거절하다가 벌을 받아 전 재산과 함께 땅에 묻힌 인물.

<sup>16</sup> (꾸란 27장 78절)

감을 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의 원인은 힘과 지적 능력이 아니라, 양육자이신 하나님의 동정과 관용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없는 전갈과 다리가 없는 뱀처럼 해로운 동물들에게도 패배하는 인간이 작은 벌레로부터 만들어진 비단을 입고 독이 있는 곤충으로부터 만들어진 꿀을 먹는 것은, 인간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그의 허약함의 결과로 인한 양육자이신 하나님의 복종시킴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 인간이여! 진실은 이렇기 때문에, 자만심과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성스러운 궁정에서 허약함과 무능함을 구원을 요청하는 말로, 가난과 필요로 하는 것을 간청과 기도의 말로 공표하고 하나님의 종복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나니, 그분은 최고의 의탁자이시도다<sup>17</sup>” 라고 말하고 자신을 높이십시오.

---

<sup>17</sup> (꾸란 3장 173절)

또한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 우주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명령으로 일부러 내게 굴복하겠나? 나로부터 종합적인 감사를 요구할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당신은 비록 정신과 형태 면에서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의무와 지위의 관점에서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주의 깊은 관찰자요, 이 지혜로운 존재들의 유창한 대변자요, 이 세상이라는 책자의 이해력 깊은 연구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놀라운 감시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들의 존경스러운 거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인간이여! 당신은 식물의 육체적인 면과 동물의 육구적인 면에 비해, 작은 개체요, 하찮은 개체요, 가난한 피조물이요,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공포스러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의 파도 속에서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담은 신앙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이슬람의 교육으로 완성되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종복의 신분 속에서 왕이며, 작은 개체 속에서 전체이며, 작은 것 속에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찮음 속에서도 그토록 지위가 높고 넓은 영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애로우신 주님

께서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 달과 해를 내 집의 등불로, 봄을 한 다발의 꽃으로, 여름을 은총의 식탁으로, 동물들을 나의 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식물들을 내 집의 장식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결론: 당신이 만일 당신의 마음(**나프스**<sup>18</sup>)과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가장 낮은 지위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진리와 꾸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우주의 가장 멋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요점

인간은 이 세상에 신하이자 손님으로 보내졌으며, 매우 중요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중요한 의무들이 맡겨졌습니다. 인간에게 그 목표와 의무 수행의 일을 시키기 위해 강렬한 촉구와 무서운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

<sup>18</sup> [**Nafs**]: 생명, 영혼, 개인, 자신(自身), 자아(自我), 욕정 및 분노의 근원이 되며 육체의 감각적 욕망으로 기우는 경향

서 설명한 바 있는 인간의 의무와 경배의 원칙들을 여기에서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간이 "최상의 형태"로 창조된 비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우주에 온 이후 두 가지 측면의 경배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마주보지 않는 형태의 경배로 묵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 형식의 경배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 우주에서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복종적으로 인정하고 그 분의 완벽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경이롭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들의 자수들로 구성된 진귀한 예술품들을 서로에게 교훈적 시선으로 보여주고, 알리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각자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정신적 보물이나 다름 없는 양육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보석들을 지각(知覺)의 저울로 측정하고 마음의 가치 평가를 통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펜이 쓴 글이나나 다름 없는 존재하는 것들의 페이지들을, 땅과 하늘의 각 층들을, 연구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존재하는 것들에게 있는 장식들

과 섬세한 예술품들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관람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창조주의 지식을 사랑하고 완벽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그분의 총애를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 하나님을 알현하고 대화하는 위치인데, 인간이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작가에게 관심을 옮겨가듯이, 영광스러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술의 기적들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이에 부응합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자비로우신 양육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분께 일편단심으로 사랑과 복종을 바침으로써 스스로를 그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은총과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정신적 은총의 즐거움을 통해 인간을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에 부응해 행동과 상태와 말로,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신체들을 가능한 한 다 동원해,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삼라

만상의 거울에 그 분의 위대함과 완벽함 그리고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비추셔서 세심한 시선을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에 부응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Allahu Akbar**), 그 분께 영광 있을지어다(**Subhanallah**)”라고 말하며 공손하게 경외감과 사랑으로 그 분께 경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관용으로 끝없는 재산과 보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에 부응해 존경과 찬미 속에서 완전히 공손한 자세로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 지상을 마치 하나의 전시장처럼 만드시고 모든 골동 예술작품들을 그곳에 펼쳐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Mashaallah**)”라는 감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셨는가! (**Barakallah**)”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있을지어다(**Subhanallah**)”라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 (**Allahu Akbar**)”라는 찬미로 호응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궁전에 흥내낼 수 없

는 서명들과, 그 분만의 독특한 인장들과, 그 분만이 가지신 휘장들과, 그 분만의 특별한 칙령들로, 모든 만물에 유일신의 직인을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신의 예증들을 수 놓으셨으며, 세상의 지평선 곳곳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표시하는 깃발을 꽂아놓으셨으며 하나님이 양육자이심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인간도 진리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신앙의 선서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호응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종류의 경배와 묵상으로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최상의 형태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은혜를 받아 신뢰할 가치가 있는 지상의 믿음직한 대리인이 됩니다.

오, 최상의 형태로 창조되어 뜻을 잘못 사용해 가장 낮은 지위로 추락한 경솔한 인간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당신처럼 젊음에 취하고 경솔함 속에서 현세를 즐겁고 아름답다고 보았지만, 젊음에 취한 상태에서 노년기에 접어들며 깨어난 순간,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내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현세의 얼굴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는 진정한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열일곱 번

째 말씀의 두 번째 장에 있는 두 가지 “진리의 현판”을 보세요. 당신도 보세요.

첫 번째 현판: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그러나 경솔함에 취하지 않은 채 경솔함의 장막을 통해 이전부터 제가 보아왔던 경솔한 자들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판: 정도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알현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던, 그 형식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와 비슷하지만 시는 아닙니다.

﴿سُبْحَانَكَ لَا عِلْمَ لَنَا إِلَّا مَا عَلَّمْتَنَا إِنَّكَ أَنْتَ الْعَلِيمُ الْحَكِيمُ﴾

“당신께 영광 있으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나이다. 진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나이다.”<sup>19</sup>

---

<sup>19</sup> (꾸란 2장 32절)

﴿رَبِّ اشْرَحْ لِي صَدْرِي ۖ وَيَسِّرْ لِي أَمْرِي ۖ وَاحْلُلْ عُقْدَةً مِنْ لِسَانِي ۖ  
يَفْقَهُوا قَوْلِي﴾

“주여, 저를 위해 제 가슴을 넓혀주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 제 일을 순조롭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  
혀로부터 매듭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제 말을 이해  
할 수 있도록.”<sup>20</sup>

﴿وَآخِرُ دَعْوَاهُمْ أَنِ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로, 온 세상의 주님  
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sup>21</sup>

---

<sup>20</sup> (꾸란 20장 25-28절)

<sup>21</sup> (꾸란 10장 10절)

